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현석



내일은 삼일절, 3월의 시작이다. 봄이 다. 춘삼월을 맞는 감회가 사람마다 다를 터인데, 필자의 마음에는 늘 입학의 달, 새 학년을 출발하는 달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유스럽계도, 새로운 시작의 환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8년 동안 농촌교육의 아픔이 회상되기 때문이다.

그 아픔이란 인구통계가 임기 내내 이 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었고, 그 이면에 자녀교육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정말 힘이 팔리는 일이었는데, 아직도 대세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새 학년을 맞아 설렘보다 서글픔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농촌교육의 현실이 담담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으며, 무엇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교육을 시키는가? 그런즉,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참으로 말은 많으면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편안

드의 교육을 배우자는 주장이 한창이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다.

필자에게도 교육에 대한 바람이 한 가지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 원인을 교육입국(教育立國)이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교

교육입국을 지속시키자

육의 공을 자타가 인정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럽을 샀을 것이다. 필자는 교육과 국가발전의 연결고리가 역동성이라고 생각한다. 혼연이 어려워도 미리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 재주를 펼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회는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이를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경쟁력의 바람이 거세다. 경쟁이란 사회를 역동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수요소다. 그런데, 이른바 일류대학은 경쟁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나서고, 여기에 외교와 자립형 사립고와 사교육이 얹히고, 교육비가 물가를 앞질러 올라가고, 특정지역의 독점이 형성되면서, 사설상 경쟁이 아닌 독점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농촌교육에 맡겨진 학생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학부모가 농촌에 살아도 자녀들을 그 재주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이른바 일류대학에도 입학했다. 물론 부모의 고생과 희생이 할 수 없이 깊다.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벌

기 위해 고학(苦學)을 했다. 학부모도 학생도 이를 감수했고, 그 덕으로 교육입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민이 자녀를 일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허황된 꿈처럼 되어 간다.

학부모는 가계에 미치는 주름을 무릅쓰고 윤실품으로 뒷받침하며, 학생은 이른바 알바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대열에 기꺼이 어렵다. 특히 농촌에 사는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도시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 그런데 농촌학생들에 대한 지금 수준의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장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을 대물림하려는 강력한 흐름 속에 앞날의 짚은 그늘을 본다. 계층변화가 없는 사회는 외형상 인정되어 보이지만, 내부가 불안하며, 사회전체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역동적인 사회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내부에 불안이 없고,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출신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인재들이 재주를 검증받지도 못하게 경쟁마당을 좁혀 놓고서, 자기들끼리의 경쟁만으로 인재를 양성해내면, 과연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인가? 교육망국(教育亡國)의 길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순수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교육에서도 누구나 자기 재주를 발견하고 재주껏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한 노력을 요구하고 싶다.

그래야만 교육이 역동적인 사회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스런 2세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입국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전곡성군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극심한 취업난 반영한 대학 '졸업 유보제'

졸업 학점을 모두 따고도 학교를 떠나지 않는 대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한 두 학기를 추가로 다닐 수 있는 '졸업 유보제'를 통해 졸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현상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연간 60만개 씩 일자리를 늘려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8년엔 14만4000명 증가에 머물렀고, 2009년엔 금융위기 여파로 오히려 7만1000명 줄었다. 2010년엔 32만3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6.1%의 높은 경제성장을에도 목표치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말로만 실업 해소를 외친 것이다. 젊은이들이 놓고 있으면 국가·기업의 경쟁력 약화, 세수(稅收) 차질, 만화에 따른 저출산 등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국가의 미래를 견디는 각오로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리비아發 유가 폭등 비상대책 시급하다

국내 도입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30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한 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4일 국제 현물가격이 배럴당 110.77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은 것은 2008년 9월1일(111.64달러)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기의 폭등은 민주화 시위로 내전 상태에 빠진 리비아 사태가 직접 원인이다. 알제리·이란 등 중동국가 정정(政情) 불안이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근원이다.

더욱이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가 한자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유가폭등의 과정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 정유사들이 리비아에서 잇따라 석유 생산을 중단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지난 2008년과 같은

폭등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상 한파와 구제역 여파로 연초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여기에 해외 원자재, 식품, 곡물, 원유 값 동반상승의 쓰나미가 가세하면 국가경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악화, 경제성장둔화가 함께 나타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방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게 금선무주다. 주요 원자재의 공급량을 늘리고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 鼓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불길이 한 달 넘도록 타오르며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퍼져처럼 번지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현대판 파라오' 무비라크 대통령을 빠진시켰고, 리비아에서는 40년 철권통치를 해온 카다피 국가원수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

아랍권의 시민혁명을 촉발한 것은 튀니지의 '재스민(jasmine) 혁명'이다. 히말리야가 원산지인 재스민은 물푸레나물과 영춘화(迎春花)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으로 튀니지의 국화다. 페르시아어 표기는 'yas min'으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수많은 튀니지 시민들은 재스민을 들고 나와 민주화를 외쳤고, 그 결과 독재를 일삼아 온 벤 알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유혈사태를 동반하는 시민혁명이나 민주화운동에 꽃이나 과일, 색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다. 소련 해체 이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이

시초다. 비폭력 반정부운동 참가자들이 특별한 색이나 꽃을 상징으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고, 이를 서구 언론들이 채택한 결과다.

2003년 그루지아의 '장미혁명'과 이듬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이 대표적이다.

중동을 강타한 재스민 향기는 이제 아시아로 스며들 조짐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27일 2차 재스민 집회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나돌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신문이 지난 9일 "일부 나라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불어대는 기만적인 '자유' '민주주의' 나팔에 춤을 춘 것과 관련된다"며 사상 교양을 역설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북한의 나라꽃은 목련(한박꽃)이다. 재스민 향기가 '목련의 봄'을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정동구



일반인들은 법조인들을 '말을 잘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법조에 들어오기 전에 법조계를 생각할 때면, 미국 영화에 나오는 말을 잘하는 변호사들을 떠올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막상 법조에 들어와서 실무를 하다 보면, 말을 잘하는 것 이전에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으며, 오해나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유익한 점이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부분은 법조계에 들어오기 전부

였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직접 재판부에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느낌 때문인지 재판에 대한 후회가 적게 남는 듯 했다.

한편, 검사로 입관한 이후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건의 내용상 고소인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들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시 한 번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고소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열을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다른 도시보다 발 빠른 행보라고 생각돼 도시농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시농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은 60곳의 공공 텃밭에서 1900개의 개인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캐나다 밴쿠버는 시내에 2010개의 도시텃밭을 만드는 '2010 공공텃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 2만8000여 구획의 시민농원 448개를 조성했다.

이는 영국의 '알로트먼트법', 독일의 제제공, 식재,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한다.

전국 제일의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주요 교통섬, 공터 등에 3년에 걸쳐 꽃 단지를 식재했고, 올해도 120만본의 꽃묘를 생산해 5개 구청과 사업소, 유관기관 등에 계절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어 국화작품 1만여 점을 전시해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국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화연구회원 150명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품종수집과 삽목을 거쳐 육묘중이며, 생장단계별로 교육하고자 한다.

도시녹화, 농업문제 해결위한 대안

김정동



'소정원법', 일본의 '시민농원 정비촉진법' 등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 관련법을 만들기 위해 서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올해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NGO단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학교를 비롯해 주말농장 운영 단체와 연계한 교육과 시설, 간이 화장실, 소농기구 등을 지원한다. 또 평동공단내 일신방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농장운영 등을 구상하고 센터 내에 도주말농장 및 귀농학교 강좌를 3월부터 개설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인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와 연계,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동구 계립1동, 서구 상무2동, 남구 방림1동, 북구 임동, 광산구 박산마을을 선정해 마을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꽃묘 및 재

또한 꽃공예, 꽃장식, 실내 미니정원, 석부작, 목부작 등의 전시를 하는 '제5회 꽃문화 축제'도 준비중이다.

도심속의 생활농업 실천을 위한 육상 정원 만들기, 원예치료실과 저면 관수 시설 이용 화훼체험, 센터내 자연학습장 등을 개방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도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시 투어버스 코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으로 정착된 선진국의 도시농업처럼 도시농업, 육상정원, 도시텃밭,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체험이나 학습 등 생활복리의 텃밭농원 외에 생업을 위한 농업, 도시민과 농촌과의 교류, 직거래 등도 도시농업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도시민의 농업 참여 욕구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도 시장개방에 의한 외래 농식품 수입증가나 농기소득 감소 같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유소 엉뚱한 기름 주유 사례 많아 피해보상규정 제정을

얼마 전 고향에 다녀오던 중 국도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원이 실수로 엉뚱한 기름을 넣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었다.

다행히 그 상태에서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카센터에 연락해 차를 견인한 뒤 주유탱크를 청소해서 자동차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았다. 수리 비용 전체를 주유소에서 물어내는 했지만 만약 엔진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가다가 차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는 생각이 들었다.

경유차가 날로 들어나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윤석천·광주 남구 월산5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